

춤·음악으로 물든 광주... ‘스트릿컬처 페스타’ 성료

ACC 등 도심서 1만5천여명 관객 열광
길거리농구·디제잉 등 오감자극 광장문화
스트리트댄서 2천150여명 댄스 배틀 후끈

전 세계 수천여명의 스트리트 댄서들이 광주에서 흥겨운 댄스 배틀을 펼치는 등 광주가 춤과 음악으로 물들었다.

광주시는 지난 5-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5·18민주광장,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광주 도심 곳곳에서 ‘2025 광주 스트릿컬처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국내외 22개 국가 스트리트 댄서 2천150여명이 참여한 ‘배틀라인업10’, 라이브 공연과 브랜드 전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글로벌 컨벤션 행사 ‘렛츠플로피30’, 길거리 농구와 디제잉 공연 등 시민참여형 광장문화 행사가 펼쳐졌다.

힙합·왁킹·팝핑·락킹·오픈스타일 등 5개 종목에서 1대1 배틀을 벌여 장르별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배틀라인업10’ 참가자들은 두 눈을 땔 수 없는 현란한 춤 솜씨를 선보이며 열기를 끌어올렸다.

특히 심사위원으로 프랑스 힙합의 대부 조셀고, 미국 비보이씨앗 우승자 주니어부갈루, 프랑스 저스트데보 락킹 우승자 피락 등 세계적 댄서



지난 5일부터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18민주광장,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광주스트릿컬처페스타’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가운데 관객들이 민주광장에서 열린 ‘LINE UPX’ 공연을 즐기고 있다. /김예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들이 참가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힙합은 ‘로치가’, 왁킹은 ‘빅터’, 팝핑은 ‘팝핀 씨’, 락킹은 ‘쿠다’, 오픈스타일은 ‘집’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지역 청년 댄스팀이 개최해 온 스트리트댄스 대회를 지역 축제로 확장한 ‘배틀라인업’은 올해 1

0회째를 맞으면서 문화 수도 광주만의 새로운 여름 대표축제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기대감을 안긴 ‘키즈 & 유스 배틀’은 400여명의 아동·청소년이 2대2 팀전 형식으로 불꽃 튀는 댄스 배틀을 벌여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키즈 부

문은 ‘몰트’, 유스 부문은 ‘메린’이 최종 우승했다.

청소년과 일반부로 나눠 30개 댄스팀이 경연을 벌인 ‘팀 퍼포먼스’는 참가자들의 절도 있고 화려한 군무와 함께 유명 스트리트 댄서들이 공연을 펼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팀 퍼포먼스에서 일반부는 ‘마화연’, 청소년부는 ‘오메가’가 대상을 차지했다.

특히 팀 퍼포먼스 경연에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2’에 출연했던 아가넌을 비롯해 기린, 왕, 호진 등 세계적인 스트리트 댄서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수준 높고 화려한 퍼포먼스와 축하 공연을 펼치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렛츠플로피30’ 행사는 스트릿 문화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복합 콘텐츠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다.

밴드 글렌체크, 싱어송라이터 윤마치, 조지 등 감각적인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함께 패션, 전시, 토크쇼 등도 진행되며 방문객들의 오감을 자극했다.

‘렛츠플로피30’과 함께 진행된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에서 진행된 ‘광장문화행사’도 3대3 농구대회, 무제한 맥주 파티, 디제잉과 감성 음악이 어우러져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었다.

광주 스트릿컬처 페스타는 올해 1만5천여명의 시민과 관광객 등이 몰리며 모두가 즐기는 젊음과 열정의 축제를 넘어 세계를 향한 경쟁력 높은 관광콘텐츠로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의 여름 대표 축제로 성장한 스트릿컬처 페스타를 통해 시민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광주를 찾아 즐기는 시간이었다”며 “다양하고 특색있는 축제를 통해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의료 사각지대 해소

전남도·의사회 협력 이달부터 지정

의료비 30% 감면 통역서비스 제공

전남도가 외국인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도 외국인 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외국인주민 증가율은 18.5%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외국인주민의 의료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주민의 경우 병원비 부담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크고 언어 소통 어려움으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전남도의사회와 협력해 6월부터 외국인 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병원은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에게 진료비의 약 30%를 감면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전남 외국인 통합지원 콜센터와 연계해 의료 통역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통역 서비스는 한국어를 포함해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등 총 6개 언어로 제공된다. 7월에는 대국어, 우즈베크어, 스리랑카어, 필리핀어 등 9개 언어로 확대한다.

안심병원 지정에 바라는 의료기관은 전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정 기준 여부를 확인한 뒤 지정서를 발급하고 외국인통·번역 지원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전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진료비 감면 여부 확인 등 실무를 담당한다. /김재정기자

광주시, 다문화가정 산모 돌보미 모집...16-20일 접수

광주시가 다문화가정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육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다문화가정 산모돌보미’를 모집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산모돌보미’ 사업은 결혼이주 산모들에게는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산모돌보미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산모돌보미는 결혼이주여성고려인여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한국 거주 3년 이상, 자녀 출산 후 1년 이상 경과,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결혼이주여성고려인여성 10명이다.

서류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다. 광주 북구가족센터 누리집을 통해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이메일(ejufamily@hanmail.net) 또는 팩스(062-363-2964, 062-525-2963)로 신청하면 된다.

활동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5시간으로 한 가정당 7시간이다. 시급은 1만3천원(식비 포함)으로 교통비가 지급된다. /변은진기자

전남 거주 임신부 등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도, 연간 48만원 상당 제공

전남도는 9일 “미래 세대의 건강증진 도모,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2024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신청일 현재 임신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가정이다. 1인당 연 48만원(자부담 9만6천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

사업 신청은 임신부의 경우 출생증명서나 임신확인서, 난임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영유아 양육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갖춰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물 남도장터(http://jnmall.kr)의 대상자별 친환경농산물 지원 전용관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신선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월 4회(연 16회) 이내, 회당 3만원 이상 주문하면 가정에서 배송받을 수 있다.

김영석 친환경농업과장은 “꾸러미 지원으로 미래 세대에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 판로도 확보하고 있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

2025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NEXT

콘텐츠산업포럼

2025.6.18^{WED} – 6.20^{FRI}

CKL 스테이지